

장차 한 번 붓에 미치게 할 일이다

-단릉 이윤영과 친구들

국찬석(우리옛그림연구소)

윤지의 그림은 고상하면서도 맑아 마땅히 일품에 속하지만, 산을 그리면 중후한 자태가 부족하고, 나무를 그리면 견고한 기상이 적었다. 재주는 높았으나 진액이 너무 메말라서 만약 겸재의 그림과 나란히 비교한다면 그의 수명이 짧을 것임을 짐칠 수 있다. 후세에 그림을 보는 자들은 그의 빼어난 재주는 아까워할지언정 사모하여 배워선 안 된다.

<석농화원_김광국>¹⁾

이윤영은 조선시대 중기 최고의 수집가였던 김광국의 컬렉션에도 있었다. 그리고 김광국이 인정했듯이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작품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그의 절친이었던 이인상(1710~1760)의 작품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인상은 이윤영의 그림에 대하여 “먹을 희롱하여 때로 세상을 놀라게 하니, 나찬과 대치를 배웠다 하겠네.”²⁾ 라고 하며 추겨 세웠다. 한 인물의 그림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따로 두고 이해할 수는 없다. 잠시 이윤영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윤영(李胤永, 1714년 ~ 1759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시인·문인·서화가이다.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와 그림에 능하였다. 이인상을 비롯한 당시 명사들 및 노론계 학자와 교류하였으며 이인상의 필법에서 영향을 받았다. 관직은 음서로 출사하여 부사를 지냈다.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자(字)는 윤지(胤之)이고 아호는 단릉(丹陵)·담화재(淡華齋)·단릉산인(丹陵山人)이다. 일찍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에 묻혀 시문과 산수와 문묵(文墨)으로 세상을 즐기려 하였으나, 주변의 권고로 후에 음서로 관직에 올랐다. 최종 관직은 부사에 이르렀다. 노론의 문인들과 교유하며 지은 시와 글이 《단릉집》《단릉유고》에 실려 있으며, 그림으로 《청호녹음도》(淸湖綠陰圖) 《고란사도》(皋蘭寺圖) 등이 현존한다. 문장이 뛰어났고, 글씨는 정교하고 세밀하였으며, 주로 전서·예서에 뛰어났다. 또한 화가로도 화법(畵法)이 뛰어났는데 주로 산수도와 인물묘사에 뛰어났다. 또한 취미로는 고서(古書)와 그림 그리는 화기를 수집하였고, 시(詩)와 글과 술을 즐겼으며, 여행 중 충청북도 단양에 들렀을 때 단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랑하여 장차 이 곳에 정착하려고 스스로 호를 단릉산인이라 하였다. 저서로는 <단릉유집>, <산수기>가 있으며, 윤리를 돈독하게 지켰고 후덕하며 밝은 성격을 지녔다는 평가가 있다.³⁾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을 즐기려 했으며, 문장, 글씨, 그림에 뛰어난 3절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다. 또한 고서와 그림 그리는 화기를 수집하였고, 시와 글과 술을 즐겼다고 한다. 말

1) 유흥준, 김채식 옮김, <김광국의 석농화원>, 2015, 놀와, 156쪽

2) 강혜선, <이인상 그룹의 교유양상과 시서화 활동연구>, 2015

3) [https://ko.wikipedia.org/wiki/이윤영_\(1714년\)](https://ko.wikipedia.org/wiki/이윤영_(1714년))

년에는 단양의 아름다움에 빠져, “일찍이 단양의 산수를 좋아하여 시내에 다리를 만들고서 ‘우화교’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곁에 초가정자를 세워 날마다 거문고와 술로 즐겁게 지냈다.”⁴⁾ 라고 하니 그의 성격을 알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윤영은 혼자서 그러한 삶을 즐기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다. 절친 이인상이 있다. 이 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의 그림을 쫓아가보자.



<추상고정도_이윤영_지본수묵, 35.2*48.5, 개인소장>

위의 그림은 이윤영이 그리고 이인상이 제화시를 짓고, 글씨를 썼다. 이인상의 인장(보산인)과 ‘윤지씨’라는 제화의 명칭으로 보았을 때, 이인상과 이윤영이 교분을 맺은 초기에 그린 것이 아닐까⁵⁾라고 박희병은 추측한다. 그러니까 이인상이 29세, 이윤영이 25세 때인 1738년경이다. 이 그림은 이윤영의 초기작에 속하는 만큼 구도도 어설프고 필치도 미숙해 보이지만 이윤영 그림의 기본 특징들이 두루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가령 예찬과 황공망의 석법이 구사되어 있다는 점이라든가(좌측 하단의 바위는 예찬의 절대준⁶⁾으로 그렸고, 중앙의 우뚝 솟은 암산은 황공망의 대석법⁷⁾으로 그렸다.) 어찌 보면 좀 어수선했어 보이고 어찌 보면 춤추는 듯한 괴목에 가까운 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빈 정자는 예찬의 영향으로 생각된다.⁸⁾ 예찬의 절대준은 이윤영의 절친이자 사상적 동지인 이인상도 즐겨 사용하던 준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윤영과 함께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인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

4) 유홍준, 김채식 옮김, 위의 책, 155쪽

5) 박희병, 위의 책, 898쪽

6) 절대(折帶)는 띠를 꺾었다는 뜻입니다. 절대준은 붓을 옆으로 뉘어 그은 뒤 끝에 가서 직각으로 짧게 그어 마무리함으로써 붓자국이 ㄱ자처럼 보이도록 한 필법을 가리킵니다. 원나라 때 문인화가 예찬(倪瓚 1301-1374)이 자주 사용하던 기법으로, 옆으로 갈라지기 쉬운 편암으로 이뤄진 산을 그릴 때 적합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겸재 정선(鄭敼 1676-1759)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을 것 같다. 이는 이윤영의 그림 세계가 결국은 이들이 속한 그룹(단호그룹)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이인상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윤영과 이인상은 단호그룹의 핵심멤버이다. 단호그룹의 이름이 이윤영의 호(단릉)와 이인상의 호(능호관)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들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들이 단호그룹 내에서 가졌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단호그룹의 구성원으로는 이윤영, 오찬, 송문흙, 송익흙, 윤명동, 김순택, 김무택, 임매, 김상묵, 김상숙, 이명환, 이최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그룹은 이념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숭명배척의 춘추의리를 견지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론의 신임의리를 견지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그룹은 18세기 가장 보수적인 정치의식을 지닌 집단이었다. 이 그룹의 인물들은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했으며, 대개 처사적 삶을 지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고립감을 벗들 간의 견고한 동지적 결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볼 때 현실은 훼손된 가치로 가득했으며, 세계는 오염되고 타락되어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확신하며 완강하게 세계와 맞섰다.⁹⁾ 한마디로 이들은 아나크로니스트(시대착오적 존재)였다. 그들에게 예찬의 쓸쓸하면서도 기품 넘치는 화법은 흙모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상고시대 서체인 전서와 예서는 동경의 대상이며, 그 시대의 기물들 또한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고목석죽도>-예찬

- 7) 황자구가 언덕배기를 그리기를 가장 좋아하여 때마다 뒀 마루에다가 겹겹이 서로 더하여(層層相加) 붓 가는대마다 살아있는 듯 그리었다.



<개자원화전>-준법-섬계방재도축-황자구

8) 박희병, 위의 책, 898쪽

9) 박희병, 위의 책, 26쪽

이인상과의 우정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 바로 <고란사도>이다. 이 그림은 실경산수화이다. 부친과 스승을 모시고 백마강 가에 있는 고란사로 명승을 유람하고 그린 것이다. 그리고 김제로 돌아와 지리산 자락 함양에서 사근역의 이인상을 방문하고 자신이 본 고란사 일대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준 것이다.



<고란사도_이윤영, 1748, 지본담채, 29.5*43.5, 개인소장>

“무진년(1748) 봄에 고란사에서 반천 윤 어르신을 만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리산으로 원령을 방문해 그 강산의 빼어남을 이야기했는데,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대략 건목 소폭으로써 한번 웃게 한다._윤영”¹⁰⁾

이라는 화제를 그림 왼쪽 상단에 썼다. 멀리서 근무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찾아가 친구에게 자신이 본 멋진 풍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도 그렇다. 둘의 우정이 어땠는지는 뭇로 더 설명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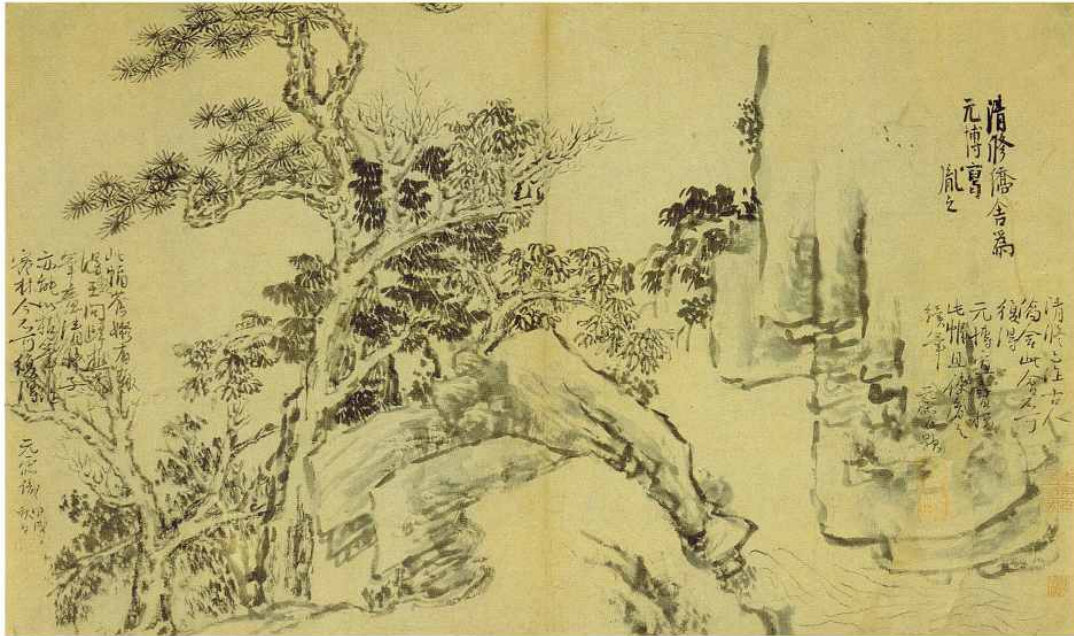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도 예찬의 절대준과 황공망의 대석법, 춤추는 듯한 나무를 볼 수 있다. 이인상이 이윤영의 <풍목괴석도>를 보고 평한 “바람이 없어도 절로 움직이는” 나무와 “포개진 것이 굳센 자태가 있”는 바위가 느껴지는가?

다음으로 살펴볼 그림은 <계산가수도>이다. 이 그림은 이인상의 <송변청폭도>와 함께 보아야 하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두 그림은 모두 한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오찬(1717~1751)이다. 단호그룹의 핵심 구성원이자 절친이며 함께 했으나 같이 하지 못한 친구 오찬을 그리며 그린 그림이기 때문이다. 서른 네 살에 장원급제한 오찬은 출사하자마자 영조의 역린을 건드려 함남 삼수로 귀양 갔다 몇 개월 만에 병사한다. 영조가 신료들에게 언급을

10) 박희병, 위의 책, 908쪽

금한 신임사화¹¹⁾(경종 때 집권한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¹²⁾과 왕실 자금을 관리하는 내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¹³⁾를 올렸기 때문이다.

먼저 <계산가수도>를 보자.



<계산가수도_이윤영, 지본수묵, 30*50, 개인소장>

그림의 오른쪽 위에 “清修僑舍爲元博寫_胤之 청수가 우거한 집에서 원박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다_윤지”라는 이윤영의 화제가 적혀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청수는 이미 옛사람이 되었으니 그가 우거했던 이 집에서의 모임은 다시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원박은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껴야 마땅하며, 장차 윤지더러 후속의 그림을 그리게 할 일이다._원령이 또 제하다.”¹⁴⁾라는 이인상의 화제가 적혀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청수는 오찬의 별자다. 단호그룹 인물들은 오찬의 집(지금의 종로구 가회동에 해당)에서 자주 문회를 가졌다. 이인상, 이윤영, 김순택, 윤면동 등은 1744년 겨울 이 집에서 한 달 이상 기거하며 강회를 가진바 있다. 이윤영의 이 그림은 1740년대 아회를 하면서 그린 것으로 추정하며, 이인상의 화제는 1754년 가을에 제사를 붙여진 것이다.¹⁵⁾ 오찬이 죽고 3년 뒤에 이윤영이 그린 오찬의 집을 보며 붙인 것이다. 이인상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그림까지 그렸다. 그 그림이 바로 <송변청폭도>이다.

그림 왼쪽에 다음과 같은 제화가 있다.

怒瀑忽成空外響 성난 폭포는 홀연 하늘 밖에 울리고
浮雲欲結日邊陰 뜬구름은 해 가에 그늘을 만들려 하네¹⁶⁾

11) 신축옥사와 임인옥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 조선 경종 즉위 1년 후인 1721년부터 다음 해 1722년까지 당파인 노론과 소론이 연잉군 왕세제 책봉문제로 충돌한 사건이다.

12)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윤5월 18일 계미 3번째 기사, 윤5월 29일 갑오 1번째 기사(1751)

13) 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 6월 3일 무술 1번째 기사(1751)

14) 박희병, 위의 책, 912쪽

15) 박희병, 위의 책, 913쪽

16) 박희병, 위의 책, 154쪽



<송변청폭도_이인상, 1754, 지본담채, 23.9*63.5, 국립중앙박물관>

폭포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있고 그 폭포소리를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구름이 폭포 주변으로 열게 드리워져 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옆으로 누워 있어 다른 <송하관폭도>와는 자못 다른 그림이다. 하지만 제시는 그림에 딱 잘 어울린다. 박희병은 “이 그림은 <송하관폭도>로 불리어 왔지만 <송변청폭도>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럴까? 이인상이 살고 있던 남간의 폭포를 모티브로 삼아 그림을 그려 병중의 이최중을 위로하는 한편, 이를 그 와유의 자로 삼게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면 <송하관폭도>가 맞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다. 힌트는 바로 제화이다.

제화의 원문은 읍취헌 박은(1479~1504)의 칠언율시 <역암에 노닐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박은이 누군가? 박은은 연산군 1년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 수찬 등을 지냈다. 그는 권신들을 비판하는 등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당시 전횡을 일삼고 있던 유자광의 미움을 받았다. 당시 갖은 비행을 저지르던 연산군도 직언을 일삼는 박은을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연산군 19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26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 이인상은 박은과 오찬의 삶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박은이 송도에 놀러가 고려의 유적을 감상하며 회고의 마음을 노래한 시를 왜 여기에 썼을까? 박희병 교수는 여기에 은유가 있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 ‘노폭怒瀑’이라는 단어에는 이인상의 심회가 투사되어 있으며, 오찬의 강개한 직언에 대한 은유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 만일 ‘노폭怒瀑’을 이렇게 읽는다면 ‘공외空外’나 ‘홀忽...향響’이라는 말도 좀더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야 옳을 터이다. 즉 전자는 ‘군주’를 후자는 적막 속에서 홀연히 나온 직언을 은유하는 말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화의 상구를 이렇게 독해한다면 ‘뜬구름은 해 가에 그늘을 만들려 하네’라는 하구는 간신이 임금의 총명함을 가리는 일을 은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옆으로 누워있는 기이한 소나무는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선 존재의 표정”¹⁸⁾ 즉 그의 벗 오찬의 모습이 될

17) 박희병, 위의 책, 164~165쪽

18) 박희병, 위의 책, 172~173쪽

것이다. 아니 오찬을 떠올리며 비장함과 결기를 향수¹⁹⁾하고자 하는 단호그룹 성원들의 모습일 것이다.

이쯤에서 <송하관폭도>가 아닌 <송변청폭도>인 이유로 돌아가자. 그림 속의 인물을 보자. 이 인물이 앉아 있는 바위는 소나무 ‘아래’가 아니라 소나무 ‘결’이다. 그리고 인물의 시선은 폭포가 아니라 소나무를 향하고 있다. 그림 속 인물은 웅크리고 앉아 세찬 폭포 소리를 들으며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이 그림 속 인물은 “자연에 심취해 있는 선비의 고상한 품격을 보여 준다거나 폭포를 완상하는 선비의 한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가에까지 닿는 성난 폭포의 우렁찬 소리를 듣고 있으며, 결기에 가득찬 소나무의 자태를 바라보고” 있다. “폭포와 소나무와 무관한 존재라 아니라 폭포와 소나무, 그리고 바위까지 포함한 ‘존재의 연관’을 맺고 있다.”²⁰⁾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윤영과 이인상은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다.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지도 100년이 훌쩍 지났건만 스스로 명나라 유민이라 생각하며 복벌을 생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獨立不懼(홀로 서 있되 두려워하지 않음)’의 자세로 세상을 비판하며 흔들림 없이 곳곳하게 자신을 지키며 살았다. 그러했기에 동시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하기에 그들의 그림은 ‘독립불구의 시각적 육화’²¹⁾이다. 이러한 그들의 결기가 조선후기 남종 문인화를 높은 경지에 오르게 한 것인지 모른다.



<임정방우도_이윤영_1743,지본담채, 34.6*55.2, 간송미술관>

끝으로 이인상이 <임정방우도>의 바위벽에 마치 그림처럼 써놓은 화제를 통해 이윤영의 그림을 정리하려고 한다.

19) 박희병, 위의 책, 173쪽

20) 박희병, 위의 책, 176~177쪽

21) 박희병, 위의 책, 421쪽

“펼치가 뻐어나고 고아하며, 능섬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가히 기뻐할 만하다.

운지는 근래 단릉의 산중에 거주하여 목석의 신골이 되었고
또한 초고함이 절특하니, 장차 한 번 붓에 미치게 할 일이다.“²²⁾

그렇게 절친한 두 친구는 이윤영이 46세에 죽고 다음해 이인상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로써 단호그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집단도 함께 사라졌다. 타락한 시대라며 광기로 맞섰으나 그림과 글, 글씨로 광기를 결기로 드러냈다. 결기를 갈고 닦기 위해 그들은 만나고 강연하며 서로를 다독였을 것이다. 타락한 시대를 벗어나지 않고 직시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림이 그림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 이들의 삶도 함께 보여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윤영의 그림에서 어떤 삶을 보아야 할까 망설여진다.

다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니 돌시네아 공주를 그리며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와 더불어 라만차 지방을 달렸던 한 기사 무용담이다. 그를 위해 아니 ‘더 나은 악기로 연주할’²³⁾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노래를 바친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기 위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감히 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부당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먼 곳에 있는 순수함과 고상함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두 팔이 너무나 지쳤을 때에도 계속하기 위해
결코 닿을 수 없는 별에게 손을 뻗어 닿기 위해서!
그 별을 좇는 것이 나의 소명이네
비록 희망이 없고, 너무나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기 위해 의문을 품거나 멈추지 않고
하늘의 도리를 들어 기꺼이 지옥으로 향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알고 있네, 이 영광스러운 전투 앞에
내가 진실될 수만 있다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게 누이리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이로 인해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상처투성이로, 멸시당하는 그 한 사나이가
최후의 용기를 다해 분투하여
결코 닿을 수 없는 별에게 손을 뻗어 닿음으로서!²⁴⁾

22) 박희병, 위의 책, 901쪽

23)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2004, 시공사

24) 뮤지컬 <Man of La Mancha> 주제곡 'The Impossible Dream' 가사 번역